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전쟁론 THE JUST WAR 이 일 호*

차 례

I. 서 론	IV. 의로운 전쟁론 비판
II. 전쟁에 관한 일반론	V.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A. 정의	
B. 전쟁의 원인	VI. 결 론
III. 의로운 전쟁론	

I. 서 론

오늘날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의 공감대가 존재한다. 전쟁의 위협은 감소되기는 커녕 증대되어 국제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이슈(issue)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핵폭탄의 출현은 재래식 군사전략과 전쟁이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던져준다. 우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과 평화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쟁연구에 있어서 핵무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멸의 공포가 전쟁심리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지하면서 개혁주의 전쟁론으로 성숙한 이론인 의로운 전쟁¹⁾ 이론의 재조명과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를 시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크게 말해서 그리스도교적 윤리에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평화주의(Pacifism), 의로운 전쟁론(the just war), 그리고 십자군 이념(the crusade)이다.

예일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재직하였던 Bainton은 이 세 가지 태도가 연대기적으로도 위의 순서로 나타났다. 초대교회는 콘스탄틴 시대까지 평화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후 콘스탄틴 치하에서 교회와 국가가 밀접하게 연결된 결

과, 그리고 야만인들의 침입 위협 때문에, 4~5세기의 그리스도교인은 교전적 세계관으로부터 의로운 전쟁론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 의로운 전쟁의 목적은 평화의 회복과 정의의 수호에 있었다. 의로운 전쟁은 국가의 권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했으며, 선한 신앙과 인간성에 대한 규약(Code)을 준수해야만 하였다. 어거스틴(Augustinus)에 의해서 이 의로운 전쟁론에 첨가된 그리스도교적 요소는 전쟁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며, 수도승과 사제들은 이 전쟁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십자군 이념은 중세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일련의 영향을 받은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혹은 교회의 후원을 받은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목적도 생명과 번영으로 이해된 정의의 수호보다는 하나의 이념, 즉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군의 적들은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규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고 쓰고 있다.²⁾ 평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단념하였고, 특히 전쟁과의 관계는 끊어버렸다. 의로운 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 국가의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악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를 지지해야 하며, 시민으로서의 개별적인 그리스도교인들은 국가의 후원하에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십자군 이념은 일종의 신 중심론적 입장(a theocratic view)을 취하였는데, 꼭 교회는 소수일지라도 그 의지를 완고한 이 세상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주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과 결합되어 있고, 의로운 전쟁론은 제한된 참여(qualified Participation)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십자군 이념은 교회의 세계 지배와 결합되어 있다.³⁾

원자폭탄의 출현은 분열과 당황을 초래하였다. 원자폭탄은 성직자와 신도들을 갈라 놓았다. 지금은 그리스도교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을 위한 갈구에 근거한 평화주의가 모색되고 있다.⁴⁾ 고 Bainton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쟁은 누구나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고, 지금도 전쟁은 지구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라는 악성의 조직체는 건강한 사회조직체보다 더욱 급속히 성장함으로 마침내는 국가도 문명도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다.

1) 의로운 전쟁이란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2)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pp. 12~13.
3) Ibid., p. 13.
4) Ibid., p. 14.

전쟁은 가장 무서운 악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쟁후에도 많은 빈곤, 과부, 고아 등을 남겨 놓는다. 그리고 그것은 문명의 진보에 필요한 많은 선과 소원되는 발전을 막아버린다.⁵⁾

프러시아의 군인이며, 전쟁 연구가였던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듯이 전쟁은 그 성격이 불확실하고 위협하며, 사람에게 피로와 고통을 준다. “역사는 피의 목욕탕”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인류역사는 전쟁에서 흘린 피와 파괴로 얼룩져있다.⁶⁾ 전쟁의 기원은 거의 인류의 기원과 같이 오래다.”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대하여 취할 태도에 관하여 다양한 주장들이 범람하는 실상을 감안할 때 전쟁문제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을 추적해 보는 것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은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의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특성과 참사를 이해하기 위한 구약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무지한 연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천성이다. 우리 주변의 소설가, 역사가,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 모두가 전쟁을 미화(美化)하고 있다. 그것은 구약의 어떤 저자가 기록한 말씀을 영적 통찰력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대두되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저자들의 거짓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음을 모르기 때문이다.⁸⁾ 지금은 전쟁을 흥미거리나 흥행물 정도로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만큼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다. 또한 역사 이해를 위해 역사가가 파악하는 아카데미한 학적 유희물이 아니다. 전쟁은 “공존이나, 무존이나?”(Coexistence or no existence)의 현실성을 갖고 책임을 수반하는 윤리적 결단을 추측하고 있다. 세계 안에서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에서만 인류의 미래성의 명암은 결정되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 전에 수립되었던 우리의 Just war(正義戰)-의로운 전쟁의 이론은 초대교회의 교부 터틀리안의 병사의 화관(The Soldier's Chaplet)에서 부터 논의 되어온 주요한 변증의 주제중 하나였다.

II. 전쟁에 관한 일반론

A. 정 의

5)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II, p. 365.

6) 손보기 등편, *도래체 사람이란 무엇일까*. (서울: 뿌리깊은나무, 1980), p. 118.

7) H. Henry Meter, Calvinism. 박윤선, 김진홍 공역(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학회, 1978), p. 169.

8) Peter C. Cpaigie,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pp.98-99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서로 다른 정치적 갈등이 각기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극한적인 군사적 대결을 칭한다.⁹⁾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은 고의적, 또는 의도적 폭력 행사로 특장지위지기 때문에 싸움, 폭동, 내란 및 경찰 행위 등도 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갈등 해결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이는 곧 협상(negotiation) · 중재(mediation) · 중재(arbitration) · 재결(adjudication) 등과 같은 정치과정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계량 정치학에서는 전쟁을 정치집단 또는 주권국가간의 폭력사태에서 발생한 전투에 관련된 희생자 수에 의거하여 분류 ·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전쟁의 기간은 경시되고 전투에서의 희생자 수가 전투의 규모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계량정치학에서는 편이상, 예컨대 100명 또는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정치집단간의 폭력사태나 국가간의 군사대결을 전쟁으로 분류,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¹⁰⁾ 고전적인 국제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쟁이란 서로 다른 적대적 집단들이 갈등의 군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행위를 동등하게 허용하는 법적조건(legal condition)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¹⁾ 따라서 전쟁이란 적대자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강요하려는 폭력행위이다.¹²⁾ 폭력은 폭력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하여 발명해 낸 기술과 과학의 여러 가지 발명품으로써 스스로를 무장한다. 폭력은 하나의 수단이고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강제적으로 복종하도록(따르도록)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은 무장해제 되어야 하며, 때문에 무장해제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전쟁행위의 당면 목적이 되는 것이다. 퀴시 라이트(Quincy Wright) 교수는 전쟁의 특성을 (1)국가간의 비정상적인 법적 상태; (2)사회집단간의갈등; (3)극심한 적대적 태도; (4)군사력을 사용한 의도적 폭력행위 등으로 보고, 이러한 변수들의 조합이 전쟁이란 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들 변수의 조합이 어떤 분기점을 넘을 때 새로운 상태가 출

9) 구영록, *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80), p. 125에서 재인용.

10) Bruce M. Russett,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in political Ecology*(Chicago; Rand McNally, 1967), p. 196.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Patterns in International Warfare, 1816-1965"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September, 1976, pp. 145-147.

11) 구영록, *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80), p. 126.

12) Carl von Clausewitz, *Von Kriege*, 김홍철역(서울: 삼성출판사, 1978)p.51.

13) *Ibid.*, p. 52.

14) Wright, *op. cit.*, pp. 12-13. 구영록, *op. cit.*, pp. 127-128에서 재인용)

현하고, 이것이 곧 법률과 여론에 의해서 전쟁으로 규정된다고 보고 있다.¹⁴⁾ 그는 또 전쟁 유형을 분류하여 (1)주권국가간에서 발발하는 국가간 전쟁(international war); (2)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 또는 국가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국전쟁(imperial war); (3)국내의 반란에 의하여 일어나는 시민전쟁(civil war)으로 구분하였다.

B. 전쟁의 원인

전쟁연구에 있어서 학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보아왔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전적이라는 관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 생활에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뒤따르는 부수산물이라는 관점이다. 자원과 공간의 쟁탈로 인하여 나타나는 투쟁은 인간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세째, 인간의 공격적 성향은 인간의 동물학적 행동이나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다. 모든 형태의 인간문명은 욕구불만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침략성은 인종 전쟁, 계급전쟁, 민족주의전쟁 등을 자초하게 된다고 한다.

네째, 전쟁은 인간의 발명물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즉 인간이 문자·결혼제도·재산제도 등을 발명한 것과 같이 전쟁도 인간이 고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데 이러한 발명들은 문화적인 유산으로서, 세계 전체에 모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도 모든 인류가 이해하고 또 자행하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고 한다.¹⁵⁾

상술한 네 가지 관점은 각기 심리학적·역사적·사회학적 및 인류학적 설명으로 명명될 수 있지만 극히 피상적인 설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찾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백성간의 불가피한 생존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특정단면을 중심으로 정립된 이론은 크게 나누어 힘의 인과이론, 경제적 인과 이론 등의 고전 이론과 보다 방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많은 변수를 고려한 라이트의 요인 분석이론 등을 비롯한 오늘날의 제모텔-군비경쟁이론, 현상유지-타파정책이론, 갈등악순환이론-을 들 수 있다.

15) Margaret Mead, "Warfare Is only an Invention - Not a Biological Necessity," *Asia*, August, 1940, pp. 402~405 또는 Charles R. Beitz and Theodore Herman, *Peace and War* (San Francisco: W. H. Freeman Co., 1973), pp. 112~118 (구영록, *인간과 전쟁* (서울: 법문사, 1980), pp. 129~130.

전쟁의 첫 원인이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반대되는 원리들의 대립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와 불의, 진리와 오류, 하나님과 악마가 각각 서로 대립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결코 조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다툼이나 탐욕이나 또는 진리와 정의에 반대되는 그릇된 이상에서 생길 수도 있다.

III. 의로운 전쟁론

칼빈은 공적인 형벌을 위하여 정당한 전쟁도 일어나며, 군주들의 무장이 단지 개인이 행하는 악을 재판의 형에 의하여 억제하기 위함 뿐 아니라, 적의를 품고 침략하는 자가 있을 때 자기의 왕국을 전쟁으로써 방위하고자 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령도 성경 가운데 있는 많은 증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¹⁶⁾ 신약 성경에는 전쟁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떠한 증언도 범례도 없다고 반문하는 자에게 답변하면서 칼빈은 전쟁을 하는 원인은 옛날 그대로 오늘날도 남아있고, 또 한편 관헌이 그 시민을 옹호함을 방해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사도들의 문서에서 구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들의 문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정치양식을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의 영적 지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 점에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으신 사실이 신약성경에는 은근히 언급되어 있다고 대답하면서 만일 기독교적인 규율이 모든 전쟁을 죄로 간주한다면,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병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무기를 버리고 군무로부터 완전히 몸을 빼도록 오히려 훈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위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너희들의 급료로 만족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눅 3:14) 그들에게 "자신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요한이 명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병사됨을 그만 두라고 명한 것이 아니다.¹⁷⁾ 라고 덧붙이고 있다. 칼빈의 이 견해는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전쟁관과 기독교의 전쟁관을 종합한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회사가들은 보고 있다. 어거스틴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은 피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치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교만을 꾸짖고 겸허하게 하고 분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면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 문제 역(서울: 세종문화사, 1977), p. 784.

17) *Ibid.*, pp. 784~785.

이는 마땅히 정당한 전쟁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전쟁은 단지 필요악으로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필요악으로부터 구하고 그들을 평화 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만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평화는 전쟁의 구실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평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당신의 뜻으로가 아니라 단지 불가피성에 의하여 당신의 대적을 살해하라. 반역하고 저항하는 자에게 폭력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패배당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장차 평화가 흔들릴 두려움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¹⁸⁾ 고 그의 편지에 쓰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쟁을 하는 것은 항상 죄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처벌은 죄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인데 마 26:26에 의하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처벌을 두려워 해야 되기 때문이다.¹⁹⁾ 라고 전쟁에 대하여 제 1조 전쟁은 항상 죄인 것인가, 아닌가? 반대 1에 대답하기를 전쟁이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구의 명에 의하여 전쟁이 수행되는가 하는 것은 주권자에게 있어 권위의 문제이다. 둘째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 즉 공격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공격이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과오를 저질러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한 전쟁이란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신민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비행을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국가가 부당하게 강탈한 것을 되돌려 주려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비행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교전국들이 선을 발전시키고 악을 멀리한다는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적법한 권위에 의하여, 그리고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선포된다고 할 때도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한다.²⁰⁾

그러므로 전쟁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은 고려되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개념은 평화개념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현대 전쟁의 가공할 전쟁자체가 극복되어야 할 최대의 적으로 되어 있다.²¹⁾

기독교 사상사에서 폭력, 비폭력에 대한 고전적 논쟁은 의로운 전쟁이론에서 그 결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운은 “의로운 전쟁” 정당화의 6가지

18) 알버트 마린,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오만규 역(서울: 성광문화사, 1982) p. 83.

19) Ibid., p. 85.

20) Ibid., pp. 85~86.

21)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ng* 김재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p. 274.

기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 전쟁은 합법적 권력체제에 의해서 선언되어야 한다.
- 2) 전쟁은 바른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 3) 전쟁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만 취해져야 한다.
- 4) 전쟁은 수단과 목적의 비례원칙에 근거해서 감행되어야 한다.
- 5) 전쟁은 성공할 수 있는 합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6) 전쟁은 절제성 있게 감행되어야 한다.²²⁾

그러나 실제 전쟁은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경기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후 단지 적절한 규례에 의해 승리국가는 패전국가 전쟁범죄의 전범자들을 처리한다. 맹목적으로 ‘의로운 전쟁’ (Just war) 이론을 비평주의적으로 말하려 함이 아니다. 의로운 전쟁의 이론은 전쟁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규범이 주어진다. 그것은 인간존엄성을 찾아 볼 수 없는 폭력, 파괴, 약탈, 큰 규모의 피난, 대량 학살, 그리고 복수와 보복적 강탈이 엄격히 배제된 광위적 규범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²³⁾

IV. 의로운 전쟁론 비판

천주교에서는 정의를 위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신학적 전승의 명백한 가르침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를 이룬 전쟁윤리를 계승하고 있다.²⁴⁾ 종래의 전쟁윤리는 이제 원자무기의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군비도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오늘에 와서 자주 주장되고 있다. 비오12세, 요한23세, 바오로 6세, 그리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르침을 따라 아래의 재원칙이 성립된다.

간 “평화는 전쟁이 없다는 데서 성립하지 않으며, 평화는 적대세력간의 평행을 통해서 보전되지 않는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질서, 즉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결실이다. 동시에 평화는 “정의를 수행하려고 하는 바를 지향하는 사랑의 결실이다” (사목헌장 78)

㉠ 전쟁을 “국가간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론은 그리스도교적인 전쟁윤리에 모순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국의

22) 고재식, *사회문제와 기독교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 146. 에서 재인용.

23) Craigie. op. cit., p. 74.

24) Josph Kardinal Höfner, *Christliche Gesell Schafstslehre*. 박영도 역(서울: 분도출판사, 1978). p. 243.

위신이나 국민의 명예도 의로운 전쟁의 이유가 아니다. (비오12세, 1948. 12. 24)

㉔ 여하한 종류의 부정에 대한 방위도 의로운 전쟁 이유가 아니다. 즉, “부정을 인내하는 것보다도 안될만큼 크다면, 그 부정을 감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무일 것이다.” 특히 현대 전쟁이 초래하는 파괴와 그 결과를 볼 때 영도에 관한 요구 등은 비록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이전 의로운 전쟁의 이유로 볼 수 없다. (비오12세, 1953. 10. 19)

㉕ “전쟁의 위험이 존속하고 상당하는 방법을 갖춘 당해 국제권위가 아직 없는 한, 모든 평화적인 타협방법을 시도해본 후라면, 한 정부에 도덕적으로 허용된 방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목헌장 79) “매우 중대하게 공동체에 가해진 부정에 대한 방위의 절대적 필요성은 “만일” 다른 수단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에도 의로운 전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신적인 평화 질서를 위해 절대로 존중하고 보증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보호하고 방위할 의무가 있는 재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재보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실로 중요한 것이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이 재보를 방위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완전하게 정당한 것이다” 한 국가가 공격함으로써 이 재보를 훼손하는 것은 “신의 존엄에 대한 일종의 모반”이다.

㉖ 이 재보가 공격받을 경우 인류의 연대성이 무감각한 증립에서 단순한 방관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을 원조할 것을 명한다. 최고의 재보가 위협받고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소수한 감상에서 전쟁의 공포와 잔혹 때문에 또는 그 파괴와 상흔 때문에 전쟁을 싫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실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행복주의적이며, 공리주의적인 감상과 유물주의적인 소산”일 것이며, “일종의 실천적 유물론이며, 천박한 감상일 것이다” (비오12세, 1948. 12. 24)

㉗ “공격자에 대해서 무력을 가지고 자기를 방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혹은 일정한 구체적 상황에서는 의무마저 있는가”하는 문제는 비록 전쟁에 기인하는 고난과 재해만을 고려하거나 전비와 전리를 면밀히 산출해서는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하게 근거있는 성과의 확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오12세, 1948. 12. 24)

㉘ 현대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하고 정당방위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전쟁문제를 온전히 새롭고 치밀한 태도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근대의 여러 교황이 이미 발언한 바와같이, 전면전쟁의 당회”는 재확인해야 한다면서 “전 도시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을 무차별하게 절연한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전쟁행위는 하나님과 인간을 거역하는 범죄이므로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사목헌장 80)

㉙ 비록 많은 사람들은 무력증강을 “국제간에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군비경쟁은 인류에게 매우 중대한 위험이 되며, 군비경쟁에 소비되는 엄청난 비용을 볼 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해치는 일이다. (사목헌장 81)

㉚ “모든 국가의 안전과 정의의 준수와 권리의 존중을 보상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권한을 언제나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적 공권” 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름이 끼치는 죽음의 적막” 외에는 다른 평화가 없는, 암흑의 시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㉛ 현대의 전쟁문제가 지니는 이와같은 복잡성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주관적 신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와같은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국가는 -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 법률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사목헌장 79) 또 한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사람은 스스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공복으로 생각할 것이며, 이 임무를 바로 수행하는 동안은 참으로 평화의 정착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²⁵⁾

이상에서 보듯이 천주교의 의로운 전쟁론 자체내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의미에서 개조되었다.

반면에 전쟁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광범위한 의견차이 앞에서, 또는 현대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전쟁에 관하여 일어난 예리한 관심 앞에서 칼빈주의자의 태도는 이해하여야 될 것인가?

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도하는 원리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에, 우리는 당장 딜레마에 직면한다. 곧 전쟁에 관한 많은 성구 중, 어떤 것들은 전쟁에 찬성하고 또 다른 것들은 전쟁을 심히 반대한다. 그러므로 주전론자나 반전론자가 다같이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더라도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²⁶⁾

구약의 윤리는 전쟁을 시인하였지만 신약의 윤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확실로도,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적 신앙에 의하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시종일관한 유일한 윤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²⁷⁾

전쟁에 대한 신자의 의무는 언제나 중대한 관심사이다.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의 첫째 의무 (사실상 가장 중대한 의무)는 전쟁이 생기기 전인 평화시의 행동에

25) Ibid., pp. 246~247.

26) Meter, op. cit., p. 175.

27) Ibid., p. 176.

관한 것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확실히 신자의 의무이다. 한 온스의 예방은 항상 한 파운드의 치료보다 귀하다. 전쟁을 방비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는 바로 신자의 복음에 있다.²⁸⁾ 전쟁방지에 기독교신자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십자가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그보다도 한층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가 친히 자기생활 전체에서 자기의 가슴 속에 필히 전쟁정신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보다 더 확실한 기독교자가 되어야 한다.²⁹⁾ 신자는 기독교의 모든 권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을 보급시킴으로 전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일단 선전포고를 할 때엔 역시 신자로서 할 의무가 있다. 이 자기의무를 바로 결정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야 되므로, 시민은 정부에 순종할 의무를 가졌다는 일반적 원리를 기억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정부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그같은 시민의 권한에 있지 않다. 둘째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권위가 절대적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정, 교회, 혹은 인류사회에 속하는 기타 어떠한 부문에든지 합법적으로 속해 있는 것외에는 무엇이나 간섭할 수 없다. 정부의 권위는 그 자체의 부문 곧, 행정상의 문제에 제한되어 있다. 더욱 정신계에 있어서, 정부는 인간의 양심문제에는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째는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요, 개인 국민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쟁은, 어떤 생활부문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는 양심문제에 관련된 것인 만큼, 기독교는 참전하게 될 가능성 있는 자기 개인문제에만 제한하여 생각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전쟁이 자기로서 양심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인지를 생각하여 해결함이다.³⁰⁾

근대의 전쟁의 정당성을 결정하는데 곤란을 느끼고, 국민 개인이 선전포고 당시에 전쟁의 정당성을 결정하기란 심히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전쟁의 정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증거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처분을 위반하여, 그 전쟁이 부정당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엔,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신자가 그 전쟁을 부정당한 것으로 결정하고 전쟁에 참가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정부보다 높은 권위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다스릴 권위를 가진 정부에게 순종하기를 양심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³¹⁾

28) Ibid., p. 187.

29) Ibid.,

30) Ibid., pp. 188~189.

31) Ibid.,

V.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전쟁기술의 고도화, 파괴력의 증대, 세계의 단일화 등으로 전쟁의 성격은 그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전쟁장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말았다. 전쟁은 필요악에서 절대악으로 바뀌고 말았다.³²⁾ 전쟁성격의 변모, 전쟁의 사회적 기능의 역전은 역사 속으로 절대성 들어오면서 생활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치의 전도와 전반적인 역할의 역전을 초래하고 있는 대전환의 일환현상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하루 아침에 전쟁을 그만 둘 수도 없고, 군비경쟁을 중단할 수도 없다는 진퇴유곡이 오늘의 45억을 극도의 심리적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전쟁윤리에 관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평가할 때, 우리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부딪쳐온 대결상황이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비인간화는 점진적으로 종교적인 입장에 설 자리를 빼앗았고 산맥의 범위로 좁혀있다. 지금은 두 초강대국이 완전히 지구를 없애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를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결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에 대항할 아무런 군사적 방어능력이 없다. 전문가들도 대륙간 유도탄(ICBM)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며, 소수의 수소폭탄만으로도 충분히 지구의 대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데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³³⁾ 모든 새로운 공격무기는 새로운 방어무기를 고안해 내게 하며, 또 새로운 방어 무기가 고안된다 해도 늘 새로운 공격무기가 등장하기 마련이다.³⁴⁾ 핵주의(nuclearism)는 20세기의 힘에 대한 기묘한 병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병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원천을 살펴서 다른 형태의 종교적 또는 분별성에 관한 표현들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긴다. 핵주의는 전체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 핵주의는 인간이 그 자신의 모멸성에 관한 지레짐작의 불안정한 느낌이 그로 하여금 커다란 착오와 탈선을 빚기 쉽도록 하고 있는 이 역사적 시기에 인간의 권능에 대한 웅대한 시야를 조성해 주고 있다.³⁵⁾ 인간은 그 역사를 통해 언제나 자기의 도구에 깊은 애착을 느끼는 법이다. 인간이

32) 강기철, 토인비와 문명(서울: 샘터, 1982), p. 207.

33) Bainton, p. 309.

34) Ibid.,

35) Robert Jay Lifton & Eric Olson, 죽음의 윤리. 이일철 역(서울: 문계사, 1978) p. 141.

자신의 육체와 능력을 확대시켜 나감에 따라서 도구는 인간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여해 왔다. 20세기 문명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그 중심적 위치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고조시켜 이 세계를 심각하게 변형시킨 도구와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주의란 현존의 두 가지 기본적인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그 첫째는 의미성의 확보를 위한 절망적이고도 필사적인 추구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서든 필요한 상징을 붙잡으려는 것과 둘째로는 도구를 신성화하려는 그것이다.³⁶⁾ 핵주의는 상상의 실패-무기라는 수단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사고의 실패-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구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 핵주의는 그 자체가 불멸의 양식들의 존속 가능성을 점점 침식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손상된 상징적 불멸의 양식들에 대한 계리적 대체안을 제공하고 있다. 핵주의는 우리 인간을 핵무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한편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핵무기가 불러일으킨 제문제에 대한 인간의 대체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⁷⁾ 핵무기에 의해 제거되는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위협은 비단 그것이 불러 올 전면적인 죽음만이 아니다.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의미(또는 무상) 라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한 무기에 의해서 이유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인간적 연관 관계가 알 수도 없는 비합리적인 종말 앞에 갑작스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덧없고 무의미하다는 느낌으로부터 우리나라 불안감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소위 문화적 삶이란 더욱더 형식을 잃어버리고 떠다니게 된다.³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핵주의 시대에 구원을 선포할 수 없다면 이는 핵주의 이전 시대에서도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핵주의·핵전쟁의 결론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라고 한다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는 핵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서장인 동시에 결론이다.

36) Ibid.,

37) Ibid., pp.146~147.

38) Ibid., p.153.

VI. 결 론

의로운 전쟁론의 첫째 규정은 전쟁이 국가의 후원하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혁명에 적용될 때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전쟁에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가장 중대한 윤리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전쟁이 기술과학적으로 더 발전될 수록 도덕적 판단력이 더욱 타락하기 때문이다. 의로운 전쟁 규약은 비전투요원에 대한 자비를 요청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조차 전쟁에서 제외되 않는다. 어린이는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쟁은 그런 모든 구별을 철폐시킨다. 분명히 현대전쟁이 의로운 전쟁 규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윤리적 입장은 전쟁이 의롭기 위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전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전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무와 죄책감이 결합된 내적으로 고독한 영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대전쟁은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분위에서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스파이크만은 결론을 제시했다.³⁹⁾

핵무기 사용의 비도덕성을 지적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 로도 신부는 무신론자의 통치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인류의 멸망이나 하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된다면,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명령을 포기하기 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이다.”⁴⁰⁾ 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리타리즘의 귀결이 자살성이라는 것은 전쟁광으로 타락하는 나라마다 몰록(유아의 인신제물을 요구하는 가나안·페니키아 지방의 전쟁신, 오늘에 와서는 대포밥을 요구하는 국가권력의 숭배를 의미한다)으로 화하여 자기포헌을 하고 만다는 수 없이 반복된 역사적 계승에서 명백해지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간 양국의 군국주의는 또 한 번 이 냉엄한 사실을 실증했던 것이다. 군국주의의 자살성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겹을 가진 자는

39) Nicholas Spy Kman, *America's Strategy in World Nolitics*(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2) p.37. (Bainton, p.353에서 재인용)40) *Theologx Digest*(winter, 1977), p.9. cf: Francis M. Stratman, *War and Christianity Today*(Westminster, Md.: New man Press, 1956). Charles S. Thompson, ed., *Moralsand Missiles*(London, 1959). (Bainton, p.357에서 재인용)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52)고 경고하셨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의 멸망의 음울한 메시지 후에는 반드시 남은 자 사상이 뒤따라 나왔다는 사실에서도 기독교의 진리는 과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의 그루터기를 남긴다. 의로운 전쟁론의 적용방법은 핵전쟁시대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의로운 전쟁론의 정신은 가능한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전쟁과 윤리(결국 십계명)와의 관계는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적 소망을 통해 좀더 탐구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빠져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Bainton, Roland H. Christian Toward War and Peace.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Brehmer, Robert G. Social Doctrines of the Catholic Church. New York: G. P. Putnam's Sons, 1936.
- Clausewitz, Carl Von. Vom Kriege. 김홍철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8.
- Craigie, Peter C. The Problem of War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 Falk, Richard A. and Kim, Smuel S, ed. The War System: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 Lifton, Robert J. Olson, Eric, 죽음의 윤리. 이일철 역. 서울: 문지사, 1981.
- Marige, Albert.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Höffner, Joseph Kardinal. Christliche Gesellschaftslehre. 박영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9.
- Harkness, Georgia. Christian Ethics.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KirKemo, Ronald. Between the Eagle & the Dove. Illinois: Inter Varsity Press, 1976.
- McNeill, John T, ed.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 Meter, H. Henry, The Basic Idea of Calvinism. 박운선 · 김진홍, 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8.
- Nelson, Keith L. and Olin, Spencer. C. Why War?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Muelder, Walter G. Foundations of the Responsible Society. 장병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Read, David H. C. Christian Ethics. London: Hodder & Stoughton, 1968.
- Thielicke, Helmut. Theological Ethics Vol. 2. Grand Rapids: Will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
- 강기철. 토인비와 문명. 서울: 샘터, 1982.
- 구영록. 인간과 전쟁. 서울: 법문사, 1980.
- 고재식 편. 기독교윤리학방법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_____, 사회문제와 기독교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손보기 등.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서울: 뿌리깊은 나무, 1980.
- 조인복. 「전쟁연구」. 서울: 성화문화사, 1959.
- 현대종교문제연구소편. 「종교와 평화」. 신학지남, 1979. 겨울.
- 신학지남, 1979. 겨울.
- 주간조선, No. 538.
- 월간중앙. 「현대의 대과제 50선」 1976년 신년호 부록.